

만 60세 연령 제한·겸직 금지 규정에... 5·18진상위 실무조사관 구성 '난항'

수십년 연구해 온 전문가들
대부분 공모 신청조차 못해
3년 활동 후 복직도 어려워
예외 규정 등 대책 마련필요

5·18 진실을 밝혀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가 5·18 진상조사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년여 만에 겨우 출범했지만, 이번에는 실제 조사활동을 해야 하는 실무 조사관 임명절차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조사관들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만 60세의 연령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5·18을 수십 년 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전문가 대부분이 60세를 넘어선 탓에 조사관 공모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18 관계자들은 "5·18이 40년이나 흐르면서 전문 연구자들의 나이도 대부분 60세를 넘어섰다"면서 "5·18의 특수성을

감안해 연령제한 규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사무소에서 세번째 전원위원회의를 갖고, 실무를 담당할 조사관 34명을 뽑는 '별정직공무원채용계획안'을 비롯한 5·18진상위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을 결정했다. 이로써 5·18진상조사위는 다음주부터 실제 공모를 통해 인원을 모집하는 인사 혁신처와 속의를 진행한 뒤, 1월 말께 정식 공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별정직 공무원은 5·18 진상조사의 실무를 맡아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1-3과장 등 총 34명으로 구성된다. 조사 1과장은 일반직 공무원 3급 상당에 해당하고, 2·3과장은 4급 상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5·18에 대해 처음 접하는 인원들이 조사관으로 임명될 경우 5·18에 대해 교육을 받고 조사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돼 빠른 진

상조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5·18의 진상조사를 위해서 조사관 중 일부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연구자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권위를 가진 연구자들은 대부분 연령 제한(만 60세)에 걸려 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근무상한연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은 만 60세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보면 별정직공무원도 겸직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5·18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나이가 전 5·18기록관장, 이재의 박사, 안길정 박사 등 대표 연구자 대다수가 60세가 넘어 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상태다. 그나마 60세 미만으로 연령상한을 적용받지 않는 연구자들도 대학교수나 5·18 기념재단, 연구소 또는 각종 단체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상 겸직이 불가능해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조사관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이 단기 3년짜리 일자리를 위해 기존 직장을 포기하고 합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5월 관계자들의 말이다. 실제 일부 5·18전문가들은 진상조사위 조사관 활동을 희망하면서도, 3년짜리 조사위 활동을 마친 뒤 다시 복직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공모신청을 꺼리고 있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60세가 넘는 연구자의 조사관 임용이 불가능하다면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 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위원은 필요시에만 조인을 하기 때문에 조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게 5·18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5·18 관련 한 연구자는 "5·18 전문 연구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 한정돼 있다"면서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면 조사관의 상한 연령을 높이고, 조사관 임용자에 대해선 기존 기간 복귀 보장 또는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남구,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대폭 강화하기로

다문화 부부 안타까운 죽음 계기

광주시 남구가 뇌병변 장애를 앓던 남편과 그를 돌보던 필리핀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고(광주일보 2020년 1월 7일자 6면)와 관련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9일 남구에 따르면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응급관리 요원을 확충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안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구청을 비롯해 16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남구노인복지관 직원, 전담 사회복지사 및 생활 지원사 등의 대체 인력도 투입한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대상자의 모니터링 강화와 업무 담당자의 연가 및 병가, 출장 등의 사유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관리 요원을 추가로 확충한다. 응급관리 요원이 자리를 비울 경우 남구노인복지관 직원을 업무 대행자로 투입한다. 또 구청 내 주부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각 동별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공유, 즉각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해당 가구를 신속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가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장례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관서 컬링 체험해요 9일 오전 광주시 북구 국립광주과학관 '스포츠는 즐거워' 기획전을 찾은 어린이들이 테이블 컬링을 체험하고 있다. 오는 3월 1일까지 진행되는 기획전에는 컬링을 비롯한 양궁, 하키, 태권도 등 다양한 운동종목을 접한 기술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강풍에...이순신대교서 트레일러 컨테이너 바다 추락

강풍으로 이순신대교를 지나던 트레일러 차량에서 컨테이너가 바다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사고 당시 추락 지점에 항해하는 선박이 없어 큰 피해는 없었지만, 강풍에 따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9시께 여수와 광양을 연결하는 이순신대교를 지나던 트레일러 차량에서 컨테이너가 바다로 빠졌다. 추락한 컨테이너는 비어 있었으며, 40

피트(가로 12m, 높이 2.4m) 크기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직후 해수청은 여수항 VTS와 여수항 도선사회 등 관계 기관에 사고 소식을 알린 뒤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8일에는 항만순찰선과 여수광양항만공사 순찰선 1척을 투입해 수색작업에 나서 컨테이너 추락 위치를 확인했다. 해수청은 크레인선과 잠수부를 동원해 인양을 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고흥군 보복성 인사' 비난 잇따라

고흥군이 훗날 시위를 비하한 군수의 발언을 녹음해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공무원들을 낙도로 발령(광주일보 2020년 1월 9일자 6면)낸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주식 전 군의원은 9일 오후 고흥읍사무소 앞에서 보복성 인사를 비판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전 의원은 "보복성 인사는 현대판 유배라는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고 고흥군의 인사 조치를 비판했다.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노조 게시판 등에도 보복성 인사를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작성자는 "휴대전화 제출 안 한 공무원을 신안 향도로 발령을 낸 고흥군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고, 또 다른 작성자는 "말도 안 되는 군

수의 폭거를 신문고에 민원 넣고 청와대 청원에 올릴 예정이다. 유배 보낸 공무원들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송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군청에서 열린 업무 간담회에서 "집단 민원에 동참한 주민들이 정말로 피해가 있다, 앓다를 알기보다는 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집단시위가 그렇다"며 "촛불집회도 마찬가지다. 몇사람이 하나 끼어 나서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송 군수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고흥군은 군수의 발언을 녹음해 유출한 공무원 색출에 나섰으며 6급 공무원 A씨를 지목한 뒤 이번 인사에서 신안 섬 지역으로 이른바 '보복성 발령'을 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상대 손해소 또 승소

법원 "청구액 1000만원 배상"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김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김씨 1명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김씨 등 40여명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제시절 일본 군함도 등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낸 소송이다.

예초 당시 정산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시작됐으나, 피해자들의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문제로 입증에 어려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취지를 바꿨다. 재판부는 그 가운데에도 김씨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과거 선고된 유사 사건의 사례를 고려해 미쓰비시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 액수로 9000만원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청구한 위자료가 1000만원 인 관계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인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내 살해 후 농로에 버린 50대 무기징역 선고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린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씨(63)를 때려 숨지게 한 뒤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폭행은 10시

간 넘게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내의 언니(72)도 A씨에게 손발이 묶인 채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을 견디지 못해 의식을 잃은 아내를 농로에 버렸고 결국 사망했다. 범행 뒤 도주한 그는 이튿날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한 졸음 쉼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음주사고 처벌 두려워 귀순한 오형성씨 음주운전 혐의 송치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했던 북한군병사 오형성(26)씨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 ○...9일 서울금천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15일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하

다 적발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면허취소 수준이었다는 것. ○...오씨는 북한에서도 음주사고를 낸 뒤 처벌이 두려워 동료와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도 오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